

들어가는 말

범용의 성숙에 대한 기대

●

테러와 영웅과 사회를 묻다...

‘또 하나의 신화시대’

인간의 고통과 세계의 책임, 그 끝간 데는 어디인가. 을유 새해까지 유효할 법한 물음에서부터 2004년은 시작했다. 의제된 전지구적 테러와, 독선적 낙관에 근거한 심판과 거역은 한 세기의 우울한 서사를 예고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일까. 슬픔과 희망과 자극과 위협해 오는 고난을 상대한 인간의 감정과 기분, 그것을 끈기 있게 탐색하는 작업에 저작자들과 책은 유난히 분주했다. A. 벤슨의 말마따나 “일어난 것을 믿고 사상과 희망, 꿈과 환상을 나눠주고” 싶어설까. 그런 물음에 대한 많은 책들의 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사물의 됴됨이를 규명하기보단 동경했고, 만족하기보단 바라고자 했던 것이 지난 열두달치 서물書物의 주류적 태도였다. 한 해 동안 지구와 세계의 모든 것들을 대하는 책의 시선은 그러했다.

갑신년 활자로 된 술회가 줄곧 머물렀던 것은 역시 ‘테러’다. ‘김선일’과 네오콘을 환기시키는 저술이 넘쳐났고, 검은 머리 미국인 빅터 D 차 아류의 와스프(WASP)적 사변과, ‘미국과 비미국’의 아이러니를 해부한 담론이 부딪치기도 했다.

유사한 책들에 대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진단은 예사롭지 않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탈냉전의 도래는 거대 제국 미국에게 ‘공공연한 적’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첨언했다. 그렇다면 팍스아메리카나의 충분조건은 이제 비미국적인 ‘공공의 적’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레 만에 ‘여리고성’을 부순 여호수아의 선민적 신념은 그 필요조건인 셈이다.

하나 술한 책들이 ‘과국으로 이끄는 독트린’으로 이를 질타하며, ‘톨레랑스의 상실’을 근심했다. 근본에 있어서 ‘스스로 덧에 걸린 세계화’란 관측도, ‘미국에 대한 몰가치적 탐구’에 대한 필요도 제기됐다. 국

내는 그렇다치고, 기 소르망과 촘스키와 테리다와 보드리야르로 대표되는 각국의 지성들이 ‘헌팅턴’에 맞선 새로운 가치들을 주문했다.

21세기의 율법을 독점한 또 하나의 바리새인인가. 그들은 그렇게도 반문했다. 그리곤 복음주의적 극단의 교의를 캐물으며, ‘여호수아’를 새로 발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평화의 또 다른 전범典範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다. ‘무엇’을 하며 잘 사는가. ‘왜’ 잘 살아야 하는가. 두가지는 서로 변주하며 ‘경제’의 질과 양을 구분하는 명제다. 세속의 술한 경제 도락을 다룬 서가엔 ‘10년 후’를 미리 근심하는 훈수와, 현상 경제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집어보는 묘수도 속출했다. 90년대 이후엔 그 이전 시대의 꽃감만 빼먹을 뿐 ‘한국경제의 앞날을 자신하고 변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탄식이 베스트셀러의 의장意匠을 입고 독자들에게 다가오기도 했다.

사회와 만나는 방식에 관한 진지한 성찰인가. 아니면 선부른 ‘이념’ 구도의 연장인가. ‘경제’를 다룬 서물 역시 ‘좌향좌’에 대한 걱정과, 신자유주의적 ‘경쟁신화’에 대한 의구심이 극단으로 맞물렸다. 한편에선 경향 진보주의의 권두언으로 오해사기도 했던 홍세화의 《빨간 신호등》에 맞서듯,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내건 공병호의 《10년 후 한국》이 낙관을 위한 절망을 부르짖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정당성에 관한 Q&A는 시대를 불문하고 정당한가.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은 차제에 “그 동안의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저항”을 그 조건변수로 제의했다. 그것은 곧 이 시대가 ‘정당하기 위한’ 도전이란 확신 때문이다. 정상성의 표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진보적 추동력, 민주개혁, 세계화와 반세계화와 같은 각론적 테제에 관한 방법론적 점검이 눈에 띄었다.

이 땅의 정상성과 정당함을 위해 넘어야 할 것은 그 뿐인가. 박노자가 노출시킨 ‘우리 안에 내재된 타자화된 전근대성’은 과연 무죄인가. 정치·사회적 관념과 생활 행간의 사고 전역에서 ‘타자의 목소리’가 기승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성이 일기도 했다. 지성 세계 일각에서 비롯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의 위선을 깨우치는 노력이 병렬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다. 때의 구획을 거슬러 2004년의 정신세계에 투입한 것

은 '신화'다. 난데없다가보다,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신성神性を 발견코자 한 기특한 사조인 셈이다. 표피적으로 글로벌리즘의 참된 완성을 위한 '나의 발견'이요, 근원에 있어선 세상과 우주가 소지한 신성한 의미 찾기에 따옴표를 둘러치는 행위다.

신화도 신화 나름이었다. 연초부터 그레코 로마에서 켈트에게까지 소급하는 신과 인간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은 눈을 돌렸다. 그리곤 우리 신화였다. 살아 있고, 다시 읽을 만한 값을 한다며 미학적 서술로까지 보폭을 넓혀간 우리네 이야기들이 적잖이 새삼스러웠다. 굳이 탈脫오리엔탈리즘으로 의역할 필요는 없을 듯. 단지 과거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만의 영혼에 충실코자 하는 의지로 보면 족할 것이다.

손동흠이나 신동훈이나 김지하나 조철수에 의해 딱히 '신화는 살아 있다'고 정의되지 않아도 신화는 분명 오늘과 어제를 공히 관통한다. 나와 우리의 삶의 플루토 자체가 신이요, 신화다. 책갈피 만큼이나 많은 일상의 의미 속에 부대끼며 살았던 점에서 지난 한해 역시 '신화시대'였음은 분명하다.

영웅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갑신년은 '이순신'에 쏠려 들었다. 그렇다고 《갈의 노래》와 《불멸의 이순신》이 당대 불멸의 스테디셀러에 오른 게 반면의 '영웅 만들기' 때문은 아니다. 일견 호기심이 작용했을망정, 로맨틱한 '인간 이순신 들여다보기'에 경도된 독서인심 때문도 아니다. 차라리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에서 더 진솔한 속내가 비쳐진다. 그 옛날 정권담당세력의 상징조작 텍스트로서 '이순신'이 아니란 점도 신선미를 더했다. 숨겨졌던 신화에서 '나'와 '내안의 것'을 보듯, 역사의 서랍에서 잊고 살았던 '미래'를 보고자 함도 '이순신' 신드롬의 얼굴이다.

'중국'에 대한 처방은 술한 처세이론만큼이나 어지럽다. 시중엔《중국, 이것이 중국이다》처럼 의기양양한 단언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사 왜곡에 분개하며, '5000년을 이끈 50인의 모략가'를 프로파일하거나, 의사擬似삼국지를 펼쳐놓는 수고를 아끼지 않곤 한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바라본 '중국'은 아직은 '무늬'일뿐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그 속살을 알고, '되놈(大者)'의 심중한 속셈을 알기엔 더 근접한 사립과 조우, 그리고 사유가 필요함을 절감했던 한 해다. '돈도 많은 삼천갑자 동방삭' 이야말로 지금 세상의 우

상이다. '웰빙'이란 영단어가 전 국민적 모토가 됐고, '10억 원'이 가가호호 신앙의 대상이 된 것도 어쩌면 필연이다. 《10억 만들기》는 누구에게든 가공의 회열을 안겨줬으며, 《떡볶이집에서 케인스를 만나다》는 장삼이사가 황제를 만나는 기분좋은 '꿈'을 선사했다. 하긴 그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풀죽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기'를 살려놓는 일임에 틀림없다. 허나 인과적 이성과 인생에 대한 근원적 통찰이 그 가운데 결여된 것이라면 '속물주의'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밖에 없다. 세상이 너무 실용적인가. 아니면 실용서가 너무 많은 것인가. 그런 애매한 물음처럼, 시중의 서가는 실체 없는 실용서로 넘쳐난 한 해였다.

세속과 이상은 동전의 양면인가. 그런 한켠에선 도올 김용옥이 나서 '노자를 모르면 지혜를 알 수 없고, 21세기를 알 수 없다'고 대중을 향해 고했다. 무위無爲이 되, 현실에선 무위하지 않은 담론을 그는 토해냈고, 이 기理氣의 조화를 통한 참된 도의 현대적 의미를 깨우치려 분투했다. 보통의 생활인에게까지 사유의 맛을 선보인 점에서 그의 공로는 대단했다. 2004년의 여백 한 귀퉁이엔 그렇게 '노장' 아닌, '도올' 열풍으로 치달은 우리 시대의 이채로운 풍경 한토막이 선명하게 자리했다.

욕심과 선악과 유무와 도덕에 관한 노장의 술한 화두 역시 그 가장자리에서 맴돌았다. 윤재근과 김형효와 이경숙과 정대철이 그 진지한 대열에 참여했고, 진동일과 박종인이 눈높이를 낮춘 노장 알리기에 또한 글뿜을 들였다.

왜 책을 읽고 써야 하나. 글쓰기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열띤 성찰이라면, 글읽기는 또 다른 '나'를 발견키 위한 지적 항해에 다름 아니다. 일련의 노작勞作들에 대한 외경만큼이나 '책'이 주는 범용의 성숙에 우린 감사해야 한다. 다시 A. 벤슨의 갈파에 주목한다. "사물의 명확한 개념을 얻고, 사건이나 사상의 여러 경향에 관한 지식을 얻으며, 크고 작은 견해를 통해 편견을 시정한다"는 그의 이론처럼 '책'의 몫은 크다.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문제와 인류적 현안을 위한 지혜에 갈음할 만하다. 책으로 돌아본 2004년이 그럴진대, 2005년에 당도할 책에 대한 기억과, 그로부터 연역된 물음과 답은 과연 어떠할까. ■

글 | 박경만 본지주간